



## 미 증시는 휴장, 유럽은 경기 기대 등으로 상승

### 글로벌 주요 이슈 사항

5 일(월) 미국 증시는 독립기념일로 휴장. 유럽 증시는 델타 변이 확산에도, 6 월 서비스업 PMI 호조, 영국 정부의 봉쇄조치 해제, 유가 강세 영향에 힘입어 상승 마감(유로스톡스 50 +0.1%, 독일 DAX +0.1%, 영국 FTSE +0.6%).

중국의 6 월 차이신 서비스업 PMI는 50.3으로 전월(55.1) 및 예상치(54.9)를 큰 폭 하회하며, 2020년 4 월 이후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. 최대 생산지역인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델타 변이 확산세가 출현한 가운데, 인플레이션 급등 부담 등이 서비스업황 둔화를 초래한 모습.

반면 유로존의 6 월 Marit 서비스업 PMI 확정치는 58.3으로 전월(55.2) 및 이전 예비치(58.0)를 상회하며, 2007년 7 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. 인플레이션 압력 확대에도 경제 정상화에 따른 수요 급증이 유로존 경기 모멘텀을 확대시키고 있는 양상.

이스라엘 보건당국에서는 5 월 2 일~6 월 5 일까지 조사한 화이자 백신의 코로나 예방률이 94.3%였으나, 6 월 6 일~7 월 2 일까지 확인된 효능은 64%로 크게 하락했다고 발표. 최근 이스라엘 내 신규 확진자의 약 90%가 델타 변이에 의한 것이었으며, 신규 확진자의 약 50%는 돌파 감염으로 알려진 상황.

영국 정부는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신규 확진자 급증(7 월 5 일 기준, 일간 2.7 만명)에도, 7 월 19 일부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, 거리두기 등 봉쇄조치를 전면 해제할 것이라고 발표. 존슨 총리는 코로나와 동반 삶을 사는 것을 배울 때가 됐으며, 날씨 및 학교 방학 일정을 고려 시 봉쇄조치를 풀기에 적절한 시점임을 시사.

5 일 예정됐던 OPEC+ 장관급 산유국 회의는 일간 40 만배럴 증산 및 기존 감산계획 2022년말 연장 등이 담긴 제안을 UAE가 반대를 하면서 취소. UAE 측은 감산 시한을 연장하려면 생산도 재검토 해야한다는 입장. 취소된 회의의 추후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으며, 이 영향으로 국제 유가(WTI 선물 +1.5%)는 강세흐름을 보임.



##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

한국 ETF 및 야간선물 등향	MSCI 한국, 신흥국 ETF는 미국 휴장, 유렉스 야간선물은 0.12% 상승. NDF 달러/원 환율 1개월물은 1,130.95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, 달러/원 환율은 보합권 출발할 것으로 예상.
주요 체크 사항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유럽 경제 정상화 진행이 국내 경기 민감주들로의 흐름 작용 가능성</li> <li>코로나 치료제 임상 2상 요건 미충족 공시에 따른 신풍제약 주가 급변동 가능성</li> <li>최근 단기 상승폭이 커던 중소형주들에 대한 평가이익 확정 물량 출회 가능성</li> </ol>

## 한국 증시 리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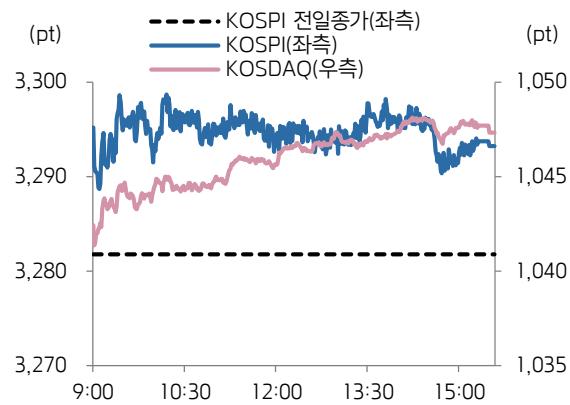
5 일(월) 코스피는 지난 금요일 미국 고용 서프라이즈 이후 미국 경기 둔화 우려 완화, 연준의 조기 긴축 불안감 소강 등 우호적인 매크로 환경 속 2 분기 실적 시즌 기대감 등이 델타 변이 확산 우려를 상쇄시킴에 따라 견조한 주가흐름을 보이면서 상승 마감(코스피 +0.4%, 코스닥 +0.9%).

업종별로는 운수창고(+3.2%), 의약품(+2.3%), 전기기기(+1.1%) 등이 강세, 종이목재(-1.2%), 보험(-1.1%), 섬유의복(-0.9%) 등이 약세. 수급별로는 개인이 2,630 억원 순매도한 반면,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4 억원, 2,640 억원 순매수를 기록.

## 한국 증시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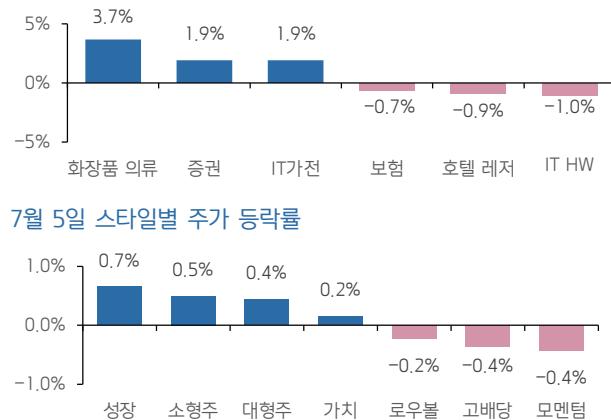
한국 증시는 미국 증시 휴장 여파에도 2 분기 실적 시즌 기대감, 선진국 경제 정상화 진행 소식 등에 힘입어 대형주 중심의 완만한 강세 흐름을 보일 전망. 국내 2 분기 실적시즌을 둘러싼 기대와 관망심리가 공존하고 있는 것은 사실. 그러나 반도체, IT 하드웨어, 디스플레이 등 지속적인 이익 전망 상향 조정 업종들이 출현하고 있으며 해당 업종들을 중심으로 향후 외국인 수급 여건이 점진적인 개선세를 보일 것으로 판단. 한편, 최근 중소형주의 상대적 우위 강세장이 전개되고 있지만, 신풍제약, 한미약품 등 일부 제약 및 바이오 업체들과 관련해 장 마감 후 코로나 치료제 임상 2상 요건 미충족, 외신의 화이자 및 모더나 백신 국내 생산 논의 오보 소식이 전해진 상황. 금일 제약 및 바이오 업종발 악재성 뉴스플로우가 전반적인 중소형주 투자심리를 단기적으로 위축시킬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.

### KOSPI & KOSDAQ 일중 차트(7월 5일)
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### 7월 5일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



자료: Bloomberg, Quantwise, 키움증권

#### Compliance Notice

-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 -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#### 고지사항

-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있고,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 -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, 유가증권의 종류, 종목,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,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제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. -본 조사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, 복제, 전시, 배포, 전송, 편집, 번역,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.